



## (주)미래엔 컬처 생산총괄팀

#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만족 앞장

### 최고의 인쇄물 생산에 전력

미래엔 컬처(대표이사 김영진)에서 생산총괄팀(팀장 이정오)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진 부서로 잘 알려져 있다. 먼저 최신 인쇄 시설과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고의 인쇄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서라는 인식이다. 인쇄생산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총괄팀은 제판에서 인쇄, 제책의 과정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다. 생산총괄팀은 회사 설립과 함께 하는 긴 역사를 지닌 부서로서 현재 성남 공장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10명, 현장에 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생산관리팀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계속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간에 부서명이 바뀌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초창기에서 시작된 부서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초등 교과서, 중고등 교과서 및 참고서, 단행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명인 대한교과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에 지금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해 많은 종류의 상업인쇄물 및 대외 수주물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납품하는 인쇄물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생산총괄팀이 담당하는 업무이다.

생산총괄팀은 전체적인 생산 계획 및 일정관리, 진행 관리 등에서부터 생산목표 설정, 작업관리, 작업 실적 분석, 인원관리, 기계유지 관리, 기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미래엔 컬처의 인쇄물에 대한 호평은 생산총괄팀의 빈틈없는 지원 및 관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부한 인쇄 경



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현장 생산부의 실행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

### 원스톱 서비스 도입, 각종 인증 획득

생산총괄팀은 제판, 인쇄, 제책, 물류 등의 전 공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총괄팀의 이정오 팀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 것은 미래엔 컬러일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시합이나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엔 컬러의 오랜 역사를 감안하면 실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회사로서도 영예로운 것이지만 그 역사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것이 생산총괄팀이었다. 또한 꾸준히 인쇄품질의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엔 컬러가 획득한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이 회사 차원에서는 인쇄업체로서 체계적인 품질 관리시스템과 환경 경영시스템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쇄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생산총괄팀으로 시야를 좁히면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뛰어난 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매진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직접적으로, 또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서가 생산총괄팀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생산총괄팀은 인쇄산업의 기술혁신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데 일조했다. 지난 2004년 500만불 수출탑, 2008년 1천만불의 수출 실적은 미래엔 컬러 그룹의 영예인 동시에 첨단 인쇄 기술을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하고 해외수출에 있어서 까다로운 인쇄물의 기준을 통과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한 생산총괄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 긴 연륜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개선사업 힘써

현재의 생산총괄팀은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CTP를 비교적 빠른 86년 3월에 전산 조판실에 설치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일본에서 전산 조판 시스템을 도입해 타사에 비해 몇 걸음 앞서가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8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미래엔 컬러는 조판부문, 제판시설부문, 인쇄시설 부문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 최첨단 기계로 교체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생산총괄팀은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 고객의 만족 목표로 팀웍 극대화엔 진력

생산총괄팀의 이정오 팀장은 회사가 생산한 인쇄물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최고를 지향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물을 내놓고자 한다. 이 팀장은 고객들이 납품받은 인쇄물이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거나 고맙다는 인사말을 할 때마다 긴장감이 높고 신경을 많이 쓰느라 생산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날아가는 한편으로 인쇄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서원들에 대해 이 팀장은 팀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질책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팀의 분위기는 회사 차원에서 다시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쇄생산 분야에서 각종 제안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며 현재 개선효과에 대해 효과 금액의 10%를 포상하는 실행포상은 1건이 현장에서 적용되어 진행 중이다. 올해 가을에 실행포상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 다각적인 쇄신 노력으로 인쇄이외 부문서도 두각

회사차원에서 지난 2004년 6시그마 경영을 도입했을 때도 생산총괄팀은 모든 부문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생산총괄팀은 고객의 만족 향상, 인쇄 작업에서의 수익 증대와 수익률 향상, 경쟁 우위 확보 및 시장 점유율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최고를 지향하는 동시에 사내에서 애사심과 탄탄한 팀웍으로 똘똘 생산총괄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